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통행 제한과 개성공단

김 영 윤

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북한군은 11월 12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금강산관광에 이어 개성공단 및 개성관광까지 중대 기로에 처하게 되었다. 이미 지난 11월 6일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대표단장 김영철 일행이 개성공단을 둘러보고 갔을 때 개성공단에 대한 모종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최종 점검 조치로 판단되었다. 북한의 대남 정책이 김정일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원회의 절대적 영향 아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종 결정을 위한 확신을 갖기 위한 행보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방문하기 전인 11월 5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조사단 방문 일정을 남측에 통보했으며, 김영철 단장은 국방위원회 정책실장 직함을 사용했다.

김영철 중장이 개발업자의 개성공단 현황 설명을 청취한 뒤 “1단계 사업이 이렇게 진전이 느린데 2단계 사업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는가 하면, 남측 책임자가 “개성공단이 잘 되도록 잘 좀 이야기 해 달라”는 취지의 당부에 대해 “이미 방침이 정해졌는데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내용으로 보아 무엇인가 중대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게 했다.

북한 군부가 최근 들어 이처럼 개성공단에 대해 강경발언을 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현재의 ‘남북경색국면’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그동안 북한은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개성공단 진전 문제에 대한 남한 당국자의 언급에 대한 불만, ‘비핵·개방·3000’ 및 ‘상생·공영정책’에 대한 비판, 7월 11일 ‘故 박왕자씨 사건’이후 취해진 금강산관광 중단에 대한 불만 등을 지속적으로 표시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월초부터 ‘김정일 와병설’이 불거졌고, 비슷한 시기에 남한 민간단체에 의한 대북 뼈라 살포가 본격화되었다.

이에 대해 10월 2일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해 북한은 뼈라살포 중지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사업에 ‘악영향’이 있을 것임을 통보하였다. 북한은 지금과 같은 대결적 남북관계에서 남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개성공단을 닫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중단을 통해 자신이 얻을 손해보다 남한에 훨씬 더 큰 손해를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개성공단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막대한 돈이 들어간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남한은 부지조성, 오페수 처리시설 등 모든 기반공사를 하고, 지금까지 76개의 공장을 건설하는 데만 수천억 원을 투자했다. 공장건설에 필요한 못하나 망치하나까지도 모두 남쪽에서 실어 날랐다. 기계설비를 비롯, 북한 노동자의 출퇴근 수단까지도 다 챙겨주었다. 어디 그뿐인가, 북한측 출입시설(CIQ)을 비롯, 호텔 및 각종 편의시설 등도 모두 남한에 의해 지어졌다. 북한이 제공한 것이라고는 인력뿐이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북한 노동자들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은 1인당 60달러 정도로서 현재 33,000명이 근무하고 있으니, 200만 달러정도이다. 더구나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 벌어들이는 돈보다 인력제공이 거의 없는 개성관광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다. 개성관광으로 하루에 600명(가장 많이 갔을 때의 규모)만 받으면 한 달에 180만 달러를 챙길 수 있다. 필요한 인원은 버스 한 대당 3명의 안내원이면 족하다. 따라서 개성공단과 개성관광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북한에게 큰 보탬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을 염두에 둔 조치를 취한 이유는 단지 돈 줄 하나에 목을 매달 수는 없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더 큰 돈 줄을 끌어들이려는 ‘압박전술’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12월 1일 이후 개성공단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해 상당한 결정을 내린 상태이지만, 1차로 육로통행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을 보면 당장 전면중단을 선언하는데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남북간 적대 관계가 해소되어 그런 중대 결정이 필요 없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 지도 모른다. 개성공단 마저 중단될 경우, 북미관계에서 대화를 표방하고 있는 오바마 정부와의 경색관계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이 중단될 경우에 받게 될 미국으로부터의 비난과 그에 따라 더욱 더 견고해질 한미공조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공조는 내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통미봉남’ 전술을 무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향방을 생각하며 한 가지 우리가 새겨볼 점이 있다. 그것은 북한이 미 대선에서 오바마가 당선되기를 기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오바마 당선자가 후보시절부터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를 거꾸로 생각하면 북한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개성공단 중단 위협과 관련하여 북한은 남한 민간단체의 뼈라 살포를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뼈라 살포는 현 정부 이전에도 있었다.

다만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은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경색되지 않았고 어떤 형태로든 남북간 대화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대화이다. 대화는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문제는 누가 먼저 대화를 제의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만 남북 관계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남북한은 경색국면 해소를 위한 조건 없는 장관급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그것만이 한반도에서의 더 큰 불상사를 막는 지름길이다.

